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강부균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044-414-1242)

김경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mkim@kiep.go.kr, 044-414-1507)



차 례

1. 2023 조기 대선 결과 및 평가
2. 미르지요예프 집권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3년 7월 9일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결과, 현 대통령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자유민주당 후보가 87.0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집권 3기에 성공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4월 30일 90.2%의 찬성률로 신헌법을 채택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개방 정책 가속화를 위한 권력과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함.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고, 2030년까지 GDP 2배 확대 및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을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월 ‘2022~26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번 공약은 동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 이에 3기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과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 ▶ 공약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함.
 - △산업 고도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 △녹색경제 전환 가속화 △인프라 개선 △금융시스템 개혁 △민간부문 비중 확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농업 발전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에 따라 집권 3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됨.
 - 광업,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한 상호호혜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그린·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농업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3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1. 2023 조기 대선 결과 및 평가

■ 2023년 7월 9일 실시된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결과 현 대통령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자유민주당 후보가 87.0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집권 3기에 진입함.

- 5월 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7월 9일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대통령령을 승인함.¹⁾
 - 이는 4월 30일 국민투표에서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90.2%의 찬성률로 채택된 지 일주일여 만에 단행된 것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5월 1일 신헌법 발효에 따라 사회·경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효율적인 국가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된 점을 조기 대선 실시의 배경으로 밝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집권 1기를 시작한 후, 2021년 11월 집권 2기에 돌입했으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집권 3기에 성공함으로써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임.
 - 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고, 연임이 가능함.
 - 다만 개헌 이전의 임기는 초기화되기 때문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최장 2037년까지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열려 있음.²⁾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대선에서 각각 88.61%, 80.1%의 득표율을 얻는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87.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³⁾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헌법 채택과 조기 대선을 통해 ‘포스트 카리모프’ 시대를 연 지도자로서 권력과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함.

- 2016년 취임 후부터 ‘미르지요예프 모델(Mirziyoyev Model)’로 일컬어지는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해온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 건설을 강조하고, 그 전제이자 핵심 과제로 ‘개헌’을 추진함.⁴⁾
 - 2021년 11월 6일 2기 취임식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s)가 필요한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개헌을 단행했다는 점을 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기본법, 즉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함.⁵⁾
 - 2023년 4월 개헌 투표에서 채택된 신헌법은 기존 헌법의 65%가 수정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의

1) “Обсуждены меры по внедрению в жизнь обновленной Конституции”(2023. 5. 8),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 “A Reformer’s Conundrum: How the Uzbek Regime Undermines Its Own Stability”(2023. 5. 23),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 이번 조기 대선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외에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해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사회민주당 로바혼 마흐무도바 4.43%, 인민민주당 올루그벡 이노야토프 4.02%, 환경당 아브두슈쿠르 합자예프 3.74%로 집계됨.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Узбекистана объявил ЦИК”(2023. 7. 10), Sputnik; 김경민(2023. 7. 10),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배경과 전망」, KIEP 지역연구 공동 동향 세미나 자료.

4) 이지은(2019),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의 향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40권 제1호, pp. 7~12.

5) “Мы решительно продолжим курс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на основ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Нового Узбекистана”(2021. 11. 6),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결과이기 때문에 ‘헌법개혁’으로 볼 수 있음.⁶⁾

* 구헌법은 1992년 채택된 후 15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으나, 이번 개헌에서는 조항이 128개에서 155개로 확대되고, 기존 128개 조항 중 91개 조항에서 개념 수정이 이루어졌음.⁷⁾

○ 신헌법은 사회국가(social state) 모델을 토대로 국가의 권능과 의무, 그리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강조함.⁸⁾

* 신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정의에 토대를 둔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⁹⁾

* 신헌법에는 대통령의 조기 대선 실시 권한이 추가되었으며, 이와 연계해 5월 6일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발표한 경우, 공표 시점 이후 2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66조 수정안이 통과됨.¹⁰⁾

- 특히 신헌법은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자유화 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교두보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신헌법은 국가가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증진 등을 위한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지원할 의무를 강조함(표 1 참고).

표 1. 신헌법의 경제정책 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65조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국민의 복지 향상 을 지향하며, 우즈베키스탄 경제 기반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으로 구성됨. 국가는 시장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고, 소비자 권리의 우위를 고려하여 사업, 기업가정신, 근로의 자유를 보장함.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한 평등과 법적인 보호를 보장함. -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므로 소유자의 재산은 법률에 규정되고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는 경우와 절차를 제외하고 박탈당할 수 없음.
제66조	- 재산의 소유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재산을 보유·사용·처분함. 재산의 사용은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타인, 사회, 국가의 권리와 적절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됨.
제67조	- 국가는 유리한 투자사업 환경을 제공 함. - 기업인은 법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 하고 방향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 . - 우즈베키스탄은 상품·서비스·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단일경제공간임 . - 독점적 활동은 법에 따라 통제·제한됨 .
제68조	- 토지와 지하자원, 물, 동식물 및 기타 천연자원은 국유재산 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음. - 법령, 국유재산으로서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는 사유재산이 될 수 있음 .

주: 굵은 글씨는 2023년 개헌 결과 개정 또는 추가된 내용임.

자료: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constitution.uz(검색일: 2023. 7. 3).

6)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전의 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는 것을 말함. 헌법 개정은 일부개정이 보통이지만, 헌법전의 거의 전부를 고치는 전부개정도 있으며, 이를 헌법개혁이라 하기도 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용어사전-헌법개정; 2022년 6월 헌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었고, 당초 2022년 내로 개헌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개헌안 초안에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반대 시위가 발생함. 이에 초안 수정 작업(관련 내용 복구)을 거쳐 2023년 4월 30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함. “Uzbekistan’s Constitutional Referendum”(2023. 6. 14),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7) “Конституция пополнится 27 новыми статьями”(2023. 3. 9), KUN.UZ;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изме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2023. 5. 1), РГ; “10 main changes in Uzbekistan’s new constitution”(2023. 5. 2), KUN.UZ.

8) 사회국가란 사회현상에 대해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해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임. 김남진(2012. 12), 「사회국가와 보장국가와의 관계」, 『법연도표』, Vol. 36, p. 18, 한국법제연구원.

9) “A constitution for “the New Uzbekistan”(2023. 5. 10), OSW; “Uzbekistan’s New Constitution, Civil Servants, and Social Protection”(2023. 5. 4), SETA.

10) “Статьи о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дополнили Избирательный кодекс Узбекистана”(2023. 5. 8), Gazeta.uz.

2. 미르지요예프 집권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 [대선공약]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그간 강조해온 ‘새로운 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5대 전략 방향을 제시함.¹¹⁾
 -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비전 제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약에서 “개혁 가속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헌법을 채택했으며, 이는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을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2030년경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에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비전으로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잠재력 실현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양질의 교육 보장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입 △시민과 기업의 이익 보장 등을 제시함.
 - [5대 전략 방향] ①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공공의료·사회서비스 체계 개선 등 ②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민간부문 확대, 녹색경제 전환 등 ③ 수자원 및 환경 보호: 절수농업기술 도입, 녹지 확대 등 ④ 법치 및 행정 효율성 강화: 디지털화를 통한 관료주의 청산, 지방정부 혁신 등 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 건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진, 해외노동 이주체계 개편 등
- 본절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5대 전략 방향 가운데 경제 분야, 즉 ‘②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집권 3기(2023~30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가. 경제성장 목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의 경제규모 달성과 중상위소득국가(Upper-middle income) 진입을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함.
- 공약에 따르면, 미르지요예프 3기 정부는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과 사업·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 [성장 목표치] 2030년까지 GDP 1,600억 달러 및 1인당 GDP 4,000달러 달성
 - * 2022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803억 9,000달러, 1인당 GDP는 2,255달러임.¹²⁾
 - [중상위소득국가 진입]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중하위소득국가(Lower-middle income)로 분류되는데, 2022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NI는 2,190달러임.¹³⁾
 - *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하위소득국가의 1인당 GNI는 1,136~4,465달러, 중상위소득국가의 경우 4,466~1만 3,845달러로 분류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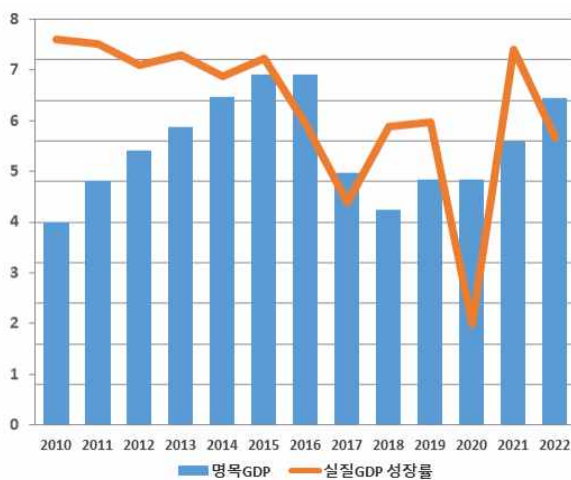
11) “Предвыбо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2023. 6. 22), Sputnik.

12)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 7. 5).

13)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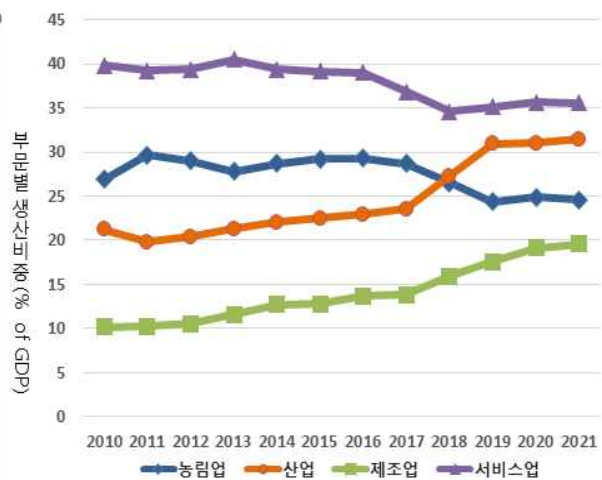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월 ‘2022~26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번 공약은 해당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¹⁵⁾
 - 이 전략은 2026년까지 GDP 1.6배 확대, 2030년까지 1인당 GDP 4,000달러 달성을 바탕으로 중상위 소득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특히 산업정책 강화와 수출경쟁력 제고, 디지털 전환, 민간부문 비중 확대 등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기 초반에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급격한 개혁의 충격으로 일시적 성장 둔화를 경험했으며,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은 후 2021년부터 회복 단계에 접어들.
 -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 생산 비중이 2016년 13.7%에서 2021년 19.6%로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나, 제조업 생산 비중이 중하위소득국가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¹⁶⁾
 - * 중상위소득국가 평균 제조업 생산 비중은 23%임.
 -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위기 및 기회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의 질적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우즈베키스탄 GDP 추이



주: 오른쪽 축은 명목GDP(십억 달러), 왼쪽 축은 실질GDP 성장률(%).
자료: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 7. 5).

그림 2.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 추이



주: 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3. 6. 29).

나. 부문별 경제공약 및 관련 현황

■ 2030년까지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함.

- △산업 고도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 △녹색경제 전환 가속화 △인프라 개선 △금융시스템 개혁 △민간부문 비중 확대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농업 발전임(표 2 참고).

14) 2023~2024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인당 GNI(Atlas method)를 기준으로 분류. "World Bank Group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for FY24 (July 1, 2023- June 30, 2024)"(2023. 6. 30), World Bank.

15) Указ №1140 от 28.01.2022 г. "О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Нов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на 2022-2026 годы"

16)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 7. 5).

표 2.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경제공약(2023~30년)에 제시된 8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산업 고도화	- 첨단기술 기반 산업 발전 - 노동생산성 2배 향상, 산업 부가가치 약 2배 증대 - 광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광물 생산량 증대 및 가공산업단지 조성 - 자동차 연간 생산량 100만 대 달성(전기차 30만 대 포함)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	- WTO 가입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 활성화 - 산업개발기금(10억 달러 규모) 조성을 통해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 - IT 서비스 수출 확대 및 2030년까지 총 수출액 2배 증대
녹색경제 전환 가속화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 - 2024년부터 녹색인증(Green certification) 시장 활성화 -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및 전력망 개선
인프라 개선	- 도로, 철도, 항공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 깨끗한 식수 공급 확대 - 인터넷 접근성 개선 및 인터넷 속도 10배 향상
금융시스템 개혁	- 대출 및 예금 규모 확대 - 은행 민영화 가속화 및 외국계 대형은행의 진출 기회 마련 - 비은행 금융서비스 확대 여건 조성 및 증권시장 규모 확대 - 개인연금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민간부문 비중 확대	- 민간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5%까지 확대 - 철도 서비스, 도로 건설·관리, 천연가스·전기 공급 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이전 - 관개, 폐기물 처리, 에너지·열 공급 시스템 관리에 민관협력(PPP) 메커니즘 도입 - 국영기업 수를 1/6로 축소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 세무행정 간소화 및 모든 기업인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윤세 등 세금 동결 - 모범 납세 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혜택 부여
농업 발전	- 농산물 수출 규모를 연간 100억 달러까지 확대 - 농업부문에 150억 달러 투자 유치 - 100개의 신규 농산물 물류센터 가동 -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 마련

자료: "Предвыбо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П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2023. 6. 22), Sputnik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산업 고도화] 첨단기술 기반 산업 발전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산업 부가가치를 20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자 함.

- [광업 고부가가치화]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광물 생산 확대 △반·완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

- 2030년까지 핵심광물 생산량을 구리 3.5배(50만 톤), 금 1.5배(155톤), 은 3배(500톤), 우라늄 3배(1만 톤)로 증대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알루미늄, 리튬, 강철, 흑연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¹⁷⁾
- 핵심광물 가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적 메가프로젝트(strategic megaprojects)'에 착수하고, 1,15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오울말리크(Almalyk)에 3개 구리 가공공장 및 신규 구리 제련소 건설 △오항가론(Ohangaron)에 구리 가공 클러스터 조성 △나보이(Navoi), 쿤그라드(Kungrad), 카라쿨(Karakul)에 대형 폴리머(polymer) 클러스터 조성 △타슈켄트(Tashkent), 나보이(Navoi) 지역에서 산출되는 인광석(phosphorite)을 활용한 완제품 생산기업 육성 △테빈불락(Tebinbulak) 및 갈리아랄(Gallyaara)에 철 생산단지 조성

17) 괄호 속 수치는 생산량 증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임. "Павкат Мирзиёев утверждён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УзЛиДеП. Главное из его программы"(2023. 5. 30), Gazeta.uz.

-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전기차 30만 대를 포함한 총 100만 대로 확대함.
 - 현재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는 35만 대이며, 친환경차 생산역량 부족으로 전기차는 전량 수입하고 있음.¹⁸⁾
 - 이에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 전기차 생산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우즈베키스탄 국영 자동차기업인 우즈오토(UzAuto)가 중국 전기차기업인 비야디오토(BYD Auto)와의 합작회사 'BYD Uzbekistan Factory'를 설립했으며, 생산설비 완공 후 비야디오토의 주력 모델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생산할 예정임.¹⁹⁾

■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 해외시장 접근성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2030년까지 총 수출규모를 현재 대비 두 배 수준인 450억 달러로 확대하고자 함.

- [WTO 가입]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함.
 -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논의(1994년 가입 신청)는 2009년 이후 큰 진척이 없었으나, 미르지요예프 정부 출범 후 2017년 말부터 재개 움직임을 보임.²⁰⁾
 - 2023년 4월 14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3년 내에 완제품 수출을 두 배 확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WTO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함.²¹⁾
-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생산 지원]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개발기금 조성 △특별수출구역(special export zones) 및 산업지대 조성 △산업용 모기지(industrial mortgage) 제도 도입 △IT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함.
 -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수출 중 중상기술(medium and high-tech) 제품 비중은 27%(2020년 기준), 첨단 기술(high-tech) 제품 비중은 0%대(2021년 기준)로 거의 전무함.²²⁾

■ **[녹색경제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친환경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함.

-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5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2024년부터 녹색인증(Green certification)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
 - 2022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6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녹색경제 전환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음.²³⁾
 - * 해당 조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5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번 대선공약에서 그 목표를 상향 조정함.

18) 「전문가오펜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승용차-전기차 시장 동향 및 주요 추진사업」(2023. 6. 15), EMERiCs, KIEP;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35만 대)는 다음 자료를 참고. Павкат Мирзиёев утверждён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УзЛиДеП. Главное из его программы」(2023. 5. 30), Gazeta.uz.

19) 「전문가오펜니언 우즈베키스탄의 승용차-전기차 시장 동향 및 주요 추진사업」(2023. 6. 15), EMERiCs, KIEP.

20) 「WTO 가입 재개하는 우즈베키스탄」(2018. 6. 13), KOTRA.

21) "Обсужден ход работ по вступлению Узбекистана в ВТО"(2023. 4. 14),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2)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 7. 5).

23) "О мерах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еформ и развитию на переход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к зеленой экономике до 2030 года"(2022. 12. 2)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또한 이 조치는 2023년 6월 1일부터 녹색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에너지 효율 향상] △모든 신규 주택 및 산업장비에 에너지 절약 매뉴얼 도입 △경제 전반의 에너지효율을 두 배로 증대 △전력망 확충 및 현대화 등을 추진함.

■ [인프라 개선] 사회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

- [교통 인프라] 도로, 철도, 항공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객·화물 수송량을 세 배 확대함.
 - [도로] △타슈켄트-사마르칸트 및 타슈켄트-페르가나 계곡(안디잔)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민관협력 (PPP) 사업 추진²⁴⁾ △도심에서 외곽지역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5,500km) 건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민간부문 참여 도로(5만 6,000km) 복구사업 추진
 - [항공] △항공 운항 편수 네 배 확대 △6개 주요 공항 현대화 △민간 항공사를 10개로 확대
 - [철도] △타슈켄트-사마르칸트, 나보이-부하라 구간 고속철도 노선 증설 △전철 비중을 65%로 확대 △철도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참여 확대
- [식수 인프라]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개선사업에 25억 달러를 투입함.
 - 202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보급률은 58.83%에 그쳤는데, 도시는 86.12%, 지방은 31.09%로 그 격차가 큰 상황임.²⁵⁾
- [인터넷 인프라] 인터넷 접근성 개선과 인터넷 속도 10배 향상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함.
 - 이를 통해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금융시스템 개혁] 은행 민영화와 자본시장 육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함.

- 대외경제은행, 인민은행, 농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외국계 대형은행의 진출 기회를 마련함.²⁶⁾
 - 이 외에 △대출 및 예금 규모 확대 △증권시장 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 △개인연금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에 초점을 둠.
 -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경제 자유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국영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해왔으나, 그 속도가 계획보다 더딘 상황임.
 - 현재 국영은행이 전체 금융권 총자산 중 77%를 차지하고 있고, 민영은행의 경우 그 비중이 23%에 불과함(표 3 참고).
- * 2020년 발표된 금융시스템 개혁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23년 민영은행의 자산 비중 목표치는 35~40%였음.²⁷⁾

24)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총 40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A new high-speed highway to be built on Tashkent-Samarkand route"(2023. 6. 26), KUN.UZ.

2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3. 6. 29).

26) "В 2017-2022 годах объем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Узбекистан увеличился в 1,5 раза"(2023. 2. 23), UZ DAILY.

2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ратеги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на 2020-2025 годы(2020.

표 3.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 주요 지표(2023년 5월 1일 기준)

구분	자산(Assets)		대출(Loans)		자본(Capital)		예금(Deposits)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십억 달러	%
합계	50	100	36	100	7	100	18	100
국영은행(11개)	39	77	30	81	6	76	11	60
- 대외경제은행(NBU)	10	19.9	8	21.3	2	20.5	3	14.7
- 우즈프롬스트로이뱅크(Uzpromstroybank)	6	12.0	5	12.9	1	9.6	1	6.7
- 농업은행(Agrobank)	5	10.3	4	11.9	1	11.1	1	6.5
- 아사카은행(Asaka bank)	4	8.8	3	8.9	1	7.9	1	5.6
- 이포테카은행(Ipoteka-bank)	4	7.6	3	7.9	1	7.6	1	6.9
- 인민은행(People's bank)	3	5.9	2	5.3	0	6.4	1	7.3
- 키실로 쿨리시 은행(Qishloq Qurilish bank)	2	4.4	2	5.0	0	3.7	1	4.2
- 마이크로크레딧뱅크(Microcreditbank)	2	3.2	1	3.3	0	4.3	1	2.7
- 알로카 은행(Aloqa bank)	1	2.8	1	2.4	0	2.3	1	3.9
- 투론 은행(Turon bank)	1	2.3	1	2.4	0	2.3	0	1.5
- 포이타흐트 은행(Poytakht bank)	0	0.0	0	0.0	0	0.2	0	0.0
민영은행(23개)	11	23	7	19	2	24	7	40

주: 민영화 대상인 국영은행은 음영표시함.

자료: "Information on major indicators of commercial banks as of May 1, 2023"(2023. 5. 30),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민간부문 비중 확대] 2030년까지 민간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5%까지 확대하고자 함.

- 에너지·수송, 공공행정, 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 전반에서 국가 독점을 폐지하고,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함.
 - 철도 서비스, 도로 건설·관리, 천연가스·전기 공급사업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고, 관개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 에너지·열 공급 시스템 관리에 민관협력(PPP)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함.
 - 민영화를 통해 국영기업 수를 1/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함.

■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투자 촉진] 2030년까지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이 중 1,100억 달러는 외국인투자 유치하고, 민관협력(PPP) 사업을 통해 400억 달러의 민간자본을 확보하고자 함.
 - * 2022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5억 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²⁸⁾
- [기업활동 지원] △기업가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모든 기업인에게 동등한 사업기회 보장 △세무행정 간소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윤세 동결 등 세제혜택 제공 △모범 납세 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혜택 부여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190개국 중 69위를 기록했음.²⁹⁾

28)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 7. 5).

- 2018년 7월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해당 평가 순위를 2022년에 20위권으로 향상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³⁰⁾

■ **[농업 발전]** 농업 인프라 현대화 및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업부문 수출규모를 16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여섯 배 이상 확대함.

- △헥타르당 평균 수확량을 면화는 45~50센트, 곡물은 80~85센트까지 확대 △집약농업(Intensive farming)을 위한 30만 헥타르 토지 개발 △농산물 가공률을 현재의 8%에서 25%로 증대 △100개의 신규 농산물 물류센터 가동(250만 톤 처리능력 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발전 국가프로그램’ 마련 △농업부문에 총 150억 달러 투자 유치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함.
- 2019년 10월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2020~30년 농업발전전략’을 채택했으며, 식량안보 강화, 첨단기술 도입 및 농업 연구개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컨설팅 서비스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3. 시사점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개방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에 따라 집권 3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공약에서 강조한 경제정책 방향은 ‘2022~26년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New Uzbekistan)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 전반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대선공약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이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추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민간부문의 역동성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 시대적 요구이자 긴요한 정책과제로 강조될 것임.
- 대선 직전인 2023년 6월 초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에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전달한 바 있는데, 미르지요예프 3기 정부 출범을 맞아 협력 추진의 모멘텀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³¹⁾

■ 특히 미르지요예프 3기 정부가 광업, 자동차 산업, 농업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활용한 상호호혜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9) World Bank(2020), “Doing Business 2020,” p. 4.

30) “Ўзбекистон нацелился в топ-20 рейтинга «Ведение бизнеса»”(2018. 7. 13), Gazeta.uz; 2021년부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발표가 잠정 중단되었음. 「세계은행 '기업 환경평가' 발표 중단...평가자료서 이상 발견」(2020. 8. 28), 연합뉴스.

31) 「박진 장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2023. 6. 2), 외교부.

- 2023년부터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의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2023~27년)’이 시작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핵심광물 관련 공동 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o 양국이 공동 설립한 희소금속센터는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 지역에 개소했음.
 - o 희소금속을 첨단산업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자원으로 전환해 첨단산업 전략자원 공급망을 다각화함은 물론, 양국간 협력을 생산기술 단계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³²⁾
 - 미르지요예프 3기 정부는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생산역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o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분야에서 1990년대 대우자동차의 현지 진출을 시작으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품목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o 이에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 및 관련 설비 수요 확대에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미래차 연구 및 생산 인프라 구축 협력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2019년 5월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자유경제특구인 코칸드(Kokand)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승인한 바 있음.³³⁾
 -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그린·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그 일환으로 농업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o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구축,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촉진,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확대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함.
- 러-우 전쟁 장기화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르지요예프 집권 3기 출범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KIEP**

32) 「[기고]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 협력 새기원 열었다」(2021. 12. 16), 디지털타임스.

33) 「[단독] '중앙일보' 입지 넓힌다'...현대차, 우즈베키스탄 전기차 생산」(2019. 5. 8), 더스피커(THE SPEAKER).